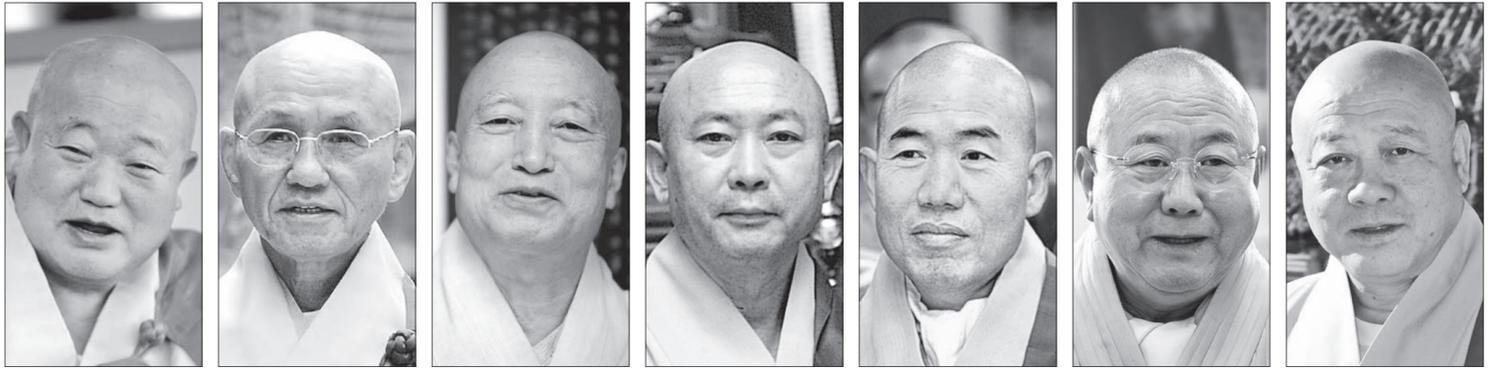


# 종단발전·후학양성·포교·대사회 분야 두루 활약

## ■ 신임 원로의원 수행이력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가르침을 전해줄 원로회의의 회원에 7명의 스님들이 새롭게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3차 원로회의를 열고, 불국사 성타스님, 금산사 월주스님, 수덕사 설정스님, 쌍계사 지하스님, 대흥사 보선스님, 은해사 법타스님, 마곡사 철웅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원로의원으로서 선출된 스님들의 주요 수행이력을 소개한다.



성타스님      월주스님      설정스님      지하스님      보선스님      법타스님      철웅스님

### 입법·사법·행정 소임 두루 역임

□ 성타스님은 월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2년 3월 학성선원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8년 3월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4년 불국사 총무를 맡아 어려운 절 살림을 행했으며, 1998년과 2006년, 2010년에 불국사 주지를 맡아 교구발전과 화합에 힘을 기울였다. 1982년 총무원 교무부장을 맡아 종단 교육발전에 일조했으며, 1980년부터 제6·7·8·10·11대 중앙총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1995년 포교원장을 맡아 종단 포교행정의 기틀을 다졌고, 당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창립해 포교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상징

□ 월주스님은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4년 3월 범주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10월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교무부장 겸 부

부장을 거쳐 1980년 제17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됐지만, 10·27 법난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제28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전력을 다스렸다. 스님은 퇴임 이후 실업극복국민공공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2003년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해 저소득국가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경허·만공 선맥 계승...수덕사 방장

□ 설정스님은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5년 10월 수덕사에서 해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1년 3월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제11대 중앙총회의장, 8·10·11대 중앙총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종단발전에 매진했다. 설정스님은 근현대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시킨 경허·만공스님의 선맥을 계승한 해암·벽초·원담스님에 이어 2009년 덕숭총림 4대 방장에 취임했으며, 지금도 절

은 후학들과 함께 정진하고, 농사를 지으며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수행기풍을 이어가고 있다.

### 중앙총회·중앙승가대 발전 견인

□ 지하스님은 추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0년 7월 범주사에서 추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4월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하스님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종단 주요 소임을 거치며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제12·13대 중앙총회의장과 제5·6·7·9·10·11·12대 중앙총회의원,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중앙승가대 총장을 맡아 학교발전과 승가교육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백련사, 실상사,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범용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다.

### 이사원용...대사회활동 활발

□ 보선스님은 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6년 3월 용암사에서 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3월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보선스님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불국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이후 용암사, 봉암사, 송광사, 마곡사, 백담사 무문관, 대흥사 등지에서 32안거를 성만했다. 보선스님은 제14·15대 중앙총회의장, 11·13·14대 중앙총회의원,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총무원 홍보부장,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로 주석하며 후학 지도에 힘쓰고 있다.

### 민중본 바탕 남북불교 교류 선도

□ 법타스님은 추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7년 1월 범주사에서 추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4월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총무부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동국대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특히 19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

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주도했으며, 2002년부터 평양 법운암 단청 및 삼존불 개금, 사리원 성불사 단청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의 사찰과 불교 문화재 보존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 천안 광덕사 중창 불법홍포 전력

□ 철웅스님은 일현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8년 1월 마곡사에서 지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4월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를 지낸 철웅스님은 제9대 중앙총회의원, 법규위원, 천안 광덕사와 공주 갑사, 제천 고산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1972년 천안 광덕사 주지로 부임해 불사 원력을 세웠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사찰을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변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광덕사 회주를 맡고 있으며, 불법홍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종단 지도자 한자리에

지난 6일 제53차 회의에 앞서 원로회의의원 스님들이 중앙총무기관 주요 소임 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앞줄 왼쪽부터 원로의원 인환스님, 범홍스님, 대원스님, 해승스님, 원명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원로회의 의장 밀운스님, 원로의원 명선스님, 중하스님, 근일스님, 정관스님, 현해스님, 뒷줄 왼쪽부터 호계원장 무상스님, 교육원장 현웅스님, 원로의원 성우스님, 암도스님, 월탄스님, 지성스님, 성파스님, 원로회의 사무처장 광진스님, 원로의원 월파스님, 원경스님, 도문스님, 정련스님, 세민스님, 중앙총회의장 원행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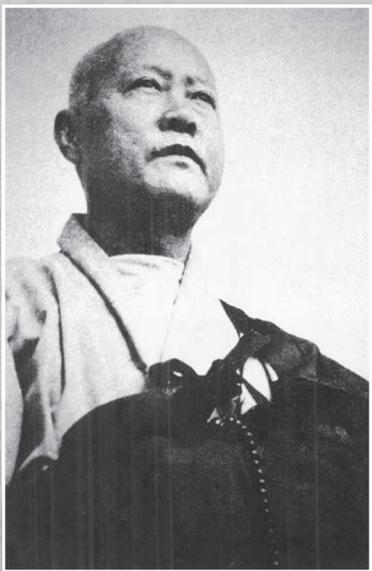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동산대종사 열반 52주기 추모다례재 안내

동산대종사는 1950년대 대한불교조계종 중정으로서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종단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 종단과 동산문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동산대종사 열반 52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음력 3. 23), 10:30
- 장소 범어사 보제루



동산대종사 진영

☉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 동산문도회